

# 국립공원에 멸종위기종 65% 서식...생물 자원 '보고'

야생 생물 총 2만568종

지난해 무등산 357만명 방문

국민 62% "무등산 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에는 국내 멸종 위기종(전체 246종) 중 65%에 달하는 160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공원에서 살고 있는 야생생물은 총 2만568종으로 우리나라 전체 생물종(4만7003종)의 43.8%를 차지한다. 국립공원이 '생물 자원의 보고(寶庫)'로 불리는 이유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국립공원에 대해 한눈에 알 수 있는 '숫자로 보는 국립공원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 수는 2016년 8월22일에 지정된 태백산을 포함해 총 22곳이 있으며, 총 면적은 6726km로 육지 면적(3972km) 기준으로 전체 국토 면적(10만339km)의 3.9%를 차지한다. 다도해 등 해상을 제외한 국립공원 중 지리산 면적이 483km로 가장 넓으며, 가장 규모가 작은 월출산(56km)과는 8.6배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립공원을 찾은 연간 탐방객수는 4435만 7705명으로, ▲한려해상 678만명(15.3%) ▲북한산 608만명(13.7%) ▲설악산 365만명(8.2%) ▲무등산 357만명(8.1%) 순으로 나타났다. 탐방객 수는 2014년 4640만6000명, 2015년 4533만2000명, 2016년 4435만8000명,

22	국립공원 갯수
2만568	생물종
160	멸종위기종
3.96	국토면적 중 비율(%)
4435만	탐방객수(지난해)
357만	무등산 탐방객수
350	문화자원(건)
1208	쓰레기 발생량(t)

2017년7월 현재 3451만4000명 등 매년 1~2%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립공원 인지도 부분에서는 지리산이 91%로 가장 높았으며 설악산 88.2%, 한라산 79% 순이었다.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는 무등산 62%, 전북 내장산 67.6%였고 월출산은 32.2%였다.

환경에 민감한 생물은 대부분 국립공원



무등산·지리산 등 국립공원에는 국내 멸종 위기종(전체 246종) 중 65%에 달하는 160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산 노고단. (광주일보 자료사진)

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양서·파충류 52종 중 40종(77%)을 국립공원에서 만날 수 있으며 이중 국내 멸종위기종은 6종(국내 전체 7종)이다. 또 멸종위기종 조류 전체 61종 중 50종, 곤충 22종 중 21종이 국립공원에 터를 잡고 있다.

국보·보물·사적 등 문화재 분야를 살펴

보면 국립공원 내에는 총 725건이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재(1만3040건)의 5.5%를 차지했다. 725건 중 불교문화재는 522건으로 72%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는 총 2906건으로, 2015년 2611건에 비해 11% 늘었다.

하루 약 8건 수준으로 셋길 출입이 1347

건(46.4%)으로 가장 많으며, 취사행위 536

건(18.4%), 흡연 272건(9.4%) 순이었다.

쓰레기 발생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국립공원 쓰레기 발생량은 모두 1208t으로, 2013년 1494t, 2014년 1375t, 2015년 1298t 등 매년 5~8%씩 감소하고 있다. 이는 2010년부터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그린포인트 제도의 영향

으로 분석된다. 그린포인트는 입산객이 쓰레기를 탐방안내소 등으로 되가져가면 무게에 따른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포인트는 주차장·야영장 이용, 양말 등 상품 교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 자료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볼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

## 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이동형 감시체계 구축

어수화산단 등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기오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오염물질의 실시간 관측, 불법·부적정 배출에 대한 현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형 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동형 감시시스템은 대기오염물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현장 출동과 신속한 현장 규명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연속 관찰(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를 차량에 장착해 오염물질 배출 시점과 시료채취 및 분석 시간단축시켰다.

기존 실험방법은 시료채취부터 분석까지 수시간에서 수일이 소요된 반면 이동형 감시시스템은 초 단위로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한 분석장비와 독자적인 전원공급 시스템을 갖춰 이동 중에도 분석이 가능

하다.

시료를 전부 처리하거나 운반 가스가 필요하지 않고, 수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 벤젠 등 대부분의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1조분의 1 단위로 최저농도(ppbv level) 수준까지 분석할 수 있다.

오염 지역 주변에 대한 고정적 감시 기능,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적 관리, 주민신고에 따른 시간, 위치, 경로, 추적 등의 자료수집과 분석도 가능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상시 감시 등 대기오염물질의 공간분포 진단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시민 탈핵학교 19일까지 운영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은 오는 19일까지 '에너지 전환 시대를 여는 광주시민 탈핵학교'(이하 탈핵학교)를 운영한다.

'탈핵학교'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의 의미와 광주·전남 지역 현안인 영광 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하는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열린 1강 '서울은 어떻게 에너지를 줄였나?-핵발전에서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 사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일에는 2강 '시민의 뜻으로 에너지전환을 결정한다-신고리5, 6호기 공론화의 의미와 고준위핵폐기물 처리 방안'(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이 진행된다.

강좌는 3강 '구멍난 한빛 핵발전소, 안전인가? 핵공화자가 바라보는 핵발전소의 구조적 문제와 영광 핵발전소의 안전성'(한병설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으로 마무리된다.

탈핵학교는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광주YMCA 2층 백제실에서 열리며 탈핵과 에너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가비 무료. 문의 062-447-0311. /김용희기자 kimyh@

## 쓰레기 어떻게 줄일까?

'자원순환교실' 참여 10개교 8일까지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이하 자원순환교실) 참여 초등학교(10개교)를 8일까지 모집한다.

자원순환교실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쓰레기 문제를 재미와 놀이, 이야기와 영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과 습관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시민활동가 양성과정 등을 통해 양성된 전문가가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 프로그램별로 특화된 다양한 교구를 이용한 체험·놀이 방식으로 진행돼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해결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운영되는 7개 프로그램은 ▲쓰레기통을 말려줘(분리배출) ▲내가 만든 빨간 수세미(비닐류 쓰레기) ▲

건전지 분리수거함 만들기(폐건전지) ▲썩썩썩썩 잘먹었습니다(음식물쓰레기) ▲고릴라는 핸드폰을 미워해(전자폐기물) ▲질풍노도의 쓰레기(회용품) ▲플라스틱은 고래밥이 아니야(플라스틱)이다.

프로그램별로 쓰레기문제에 대한 영상 수업과 동화책, OX퀴즈, 만들기, 놀이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연계된다.

자원순환교실을 이끌 자원순환시민강사를 일컫는 '용용씨'는 여러번 쓴다는 의미의 '용용'(用用)과 순환의 영어단어 Cycle에서 따온 'C'의 합성어다. 현재 14명의 시민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원순환교실에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광주환경운동연합(062-514-2470)으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생태 주제 단편동화 공모전

국립생태원, 10월까지 접수

국립생태원 '제2회 국립생태원 생태동화 공모전'을 다음달 31일까지 연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생태동화를 대상으로 한다. '자연이 들려주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야기'를 담은 생태와 환경이 주제다.

응모자는 단편동화 1편(면당 200자 원고지 5매 내외)과 응모신청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국립생태원 홈페이지(www.nie.re.kr), 공모전 홈페이지(www.nie-contest.com)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된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생태문화 설명과 표현의 창의성 등 예술적 완성도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오는 11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대상 1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1명에게는 국립생태원 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우수상 2명과 장려상 5명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2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수상작 9편은 생태동화책으로 만들어 내년 3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김용희기자 kimyh@

**수강생 모집**

###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5년 이상 물로 기밀해도 물이 새지 않고  
안티 얼어붙지 않는 실험 동양성 연차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1/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2/ 건축 내외장재 패터디자이너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3/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4/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